대림 제 2주일(2017년 12월 10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벌써 대림 2주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번주와 다음주 지나면 성탄절이고 연말입니다. 곳곳은 이미 성탄이 온 것같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성탄이 오길 기다리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뭔가 좀 좋은 일이 없을까 하고, 특별한 기대나 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기대나 꿈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도 하구요, 또 어떤 분들은 성탄절날 아침에 혹시 특별한 선물을 받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많은 분들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고 싶은 꿈을 갖기도 하지요. 뭐 이런 저런 막연한 기대는 많이 하지만, 뭐 특별한 일이 있겠습니까? 뭐 아주 재미있고, 행복한 일을 상상하지만, 금새 아무일 없이 기분만 들떴다가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내심 뭔가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뭐 그 기대는 금방 깨지고 맙니다. “아이구, 내가 저런 인간을 믿고 살다니, 꿈 깨야지”하면서 금새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무튼, 성탄을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 이런 저런 기대나 꿈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대림 기간은 ‘꿈을 갖는 시기’입니다.

 성탄절에 대한 어떤 꿈을 갖거나 어떤 기대를 하든지간에, 이 대림 기간에 기억해야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에 특별한 꿈을 갖는 것 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기대와 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시기를,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잃어버리고, 부서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느님의 꿈은 죄로 얼룩진 어두운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느님의 꿈이 바로 성탄인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세상은 아직도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도 없고, 인간의 죄를 속죄할 길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도 없었고, 용서도 없었고, 그리고 세상에 구세주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참된 사랑이 있는 세상. 이것이 바로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진 꿈이었습니다.

 성탄을 통해서 하느님의 꿈과 인간의 꿈이 서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이 됩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계획은 단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만 해당하는 가상적인 꿈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용서하면서, 다같이 함께 하느님께로 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꿈입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구원’은 가장 현실적인 우리 삶의 이야기가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부가 그냥 강론 시간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구세주가 곧 오신다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가 더 예리하고 심오하게 들립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는 하느님의 길로 ‘되돌아 감’을 뜻합니다. 하느님께로부터 등지고 있었던 ‘잘못된 방향’을 돌려서 ‘다시 하느님께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께로 방향 전환!’ 이것이 ‘회개’입니다.

 따라서, 대림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걸어 온 길을 돌이켜 보고, 길을 잘 못 들었다면 다시 방향을 바로잡아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산을 허물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욕심과 이기심 등으로 쌓여있는 인생의 산을 허물어야 합니다. 고집과 교만으로 가득한 내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편견, 미움, 분노 등으로 굽어져 있는 우리 인생의 굴곡을 곧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오늘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칩니다. 광야는 침묵의 장소입니다. 고요의 장소입니다. 인간 사회의 온갖 소음과 비리, 욕심, 이기심과 혼란으로부터 떨어진 고요와 침묵의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침묵하면서 고요히 내 자신을 들여다 보라는 것이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오시는 예수님을 위해 길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말 보다는 침묵이 더 가치있고 소중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거룩한 침묵’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살았습니다. 옳다는 이유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불의에 맞서기 위해서, 혹은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니면, 갖가지 변명들을 늘어 놓으면서, 하고 싶은 말 다하면서, 정말 많은 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잘 났기 때문에... 고집도 장난이 아닙니다. 절대 굽히거나 질 수 없습니다. 그게 누구라도. 하느님이라도...

 이제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침묵과 고요의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죠. 나와 내 하느님이 아주 솔직하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침묵과 고요가 없는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성탄절을 원합니다. 희생과 나눔이 없는 이기적인 행복을 원하죠.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는, 순간을 즐기기 위한 단순한 기쁨을 원합니다. 헌신과 인내가 없는, 말 만 앞서는 평화를 원합니다. 갖가지 아름다운 성탄 장식을 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캐롤 음악을 틀고, 반짝이는 불빛을 가득 밝힌다고 해서 성탄이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곱게, 근사하게 차려입고, 크리스마스 파티에 가서 정신없이 먹고 흔들어 댄다고 해서 성탄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쉽고 간단하게 찾아 온 성탄은, 그 기쁨이나 행복 또한 그냥 쉽게 사라지고 말 겁니다. 하루만 지나면 성탄의 모든 행복은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올 성탄도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 하겠죠. “어? 예수님 오시다 말고 그냥 가셨네!”

 연말이다 성탄이다, 여러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고요와 침묵 속에서 외치는,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메세지는 참으로 예리하고 절박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고 우리 삶 안에 성탄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교만과 고집, 편견과 미움, 분노로 가득찬 마음의 벽을 허물고, 단단하게 쌓아 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치유와 용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봉헌의 시간입니다.

 벌써 대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그리스도가 우리 삶 안에 들어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닦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 아침에는 우리 마음의 온갖 상처가 다 씻기고, 용서와 회개의 마음으로 참된 성탄의 행복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욕심으로 굴곡이 져 있는 우리 인생길을 주님이 오시도록 곧게 닦으시기 바랍니다. 편견과 이기심으로 높이 쌓아 놓은 인생의 장벽을 허물어서 주님이 거리낌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삶은 참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